

모노크롬(MonoCrom)앨범에 관한 고찰

김준수¹, 조태선^{2*}

¹알바트로스 뮤직,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A Study on the Album "MonoCrom"

Joon-Soo Kim¹, Tae-seon Cho^{2*}

¹Albatross Music" & Dept of Applied Music, ²Choongwoon University

요약 많은 대중들은 가수 신해철에 대해 음악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했던 뮤지션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외에도 각종 대중매체에 다 방면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전 방위적인 엔터테이너이기도 하다. 그의 음악적인 성향은 매우 진보적이며,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퓨전 스타일의 음악을 지향한다. 그의 앨범 중 '모노크롬'은 독특한 테크노 음악과 전통음악을 접목한 결과물로 새로운 사운드를 향한 음악적인 가치와 의미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앨범에서 국악의 비중은 매우 높다. 쟁과리, 장구, 징 등 사물놀이 전통악기뿐만 아니라, 대금, 태평소, 품바, 타령 등을 사용, 기존 국악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진보된 확장성 있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K-Pop'이 세계적인 음악으로 계속 사랑받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확장성을 기반을 둔 새로운 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모노크롬 앨범에서처럼 국악을 음악적 기재(器財)로 사용한다면, 차별성을 둔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높은 'K-Pop'의 관심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public knows the singer Shin Haechul as a musician who performs various musical activities as a producer, singer, and songwriter. However, he was also an all-encompassing entertainer who has been involved in different fields of popular media. His musical tendency is very progressive, and he pursues various attempts to create experimental fusion style music. Among his albums, 'MonoCrom'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unique techno music and traditional music, and this album is known to bring the level of Korean popular music one step further in terms of musical value and meaning towards a new, unique sound. In this album, gukak holds great importanc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samulnori instruments such as kkwaenggwari, janggu and jing, instruments like daegeum, taepyeongso, pumba and taryeong were used to show more progressive and expanded crossover music through the collaboration with gukak. In order for the current 'K-Pop' to continue to gain worldwide popularity, it needs a new attempt based on musical expandability. Therefore, if gukak is used as in the album MonoCrom, unique and differentiated music will be created, and will continually promote the worldwide interest in 'K-Pop'.

Keywords : Shin Hae-Chul, MonoCrom, Korean traditional music, Extensibility, Techno music

본 연구는 2019년 청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 지원을 받아 진행 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December 24, 2020

Revised January 16, 2020

Accepted February 7, 2020

Published February 29, 2020

1. 서론

동시대를 함께한 대중들은 신해철을 음악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등 음악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각종 대중매체에 경계없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전 방위적인 뮤지션으로 기억하고 있다[1]. 그의 음악적인 성향은 발표했던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진보적인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퓨전 스타일의 음악을 지향한다.

기존 대부분의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은 활동시기가 되면 이전에 사랑받았던 비슷한 장르를 기성 작곡가와 작사가를 통해 동일한 유형으로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는 항상 새로운 포맷을 원하였다. 때문에 매번 새로운 음악적 구도를 잡고 실행하기에 매우 복잡한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의 음악을 표현한다면 “확장성”과 “융합”이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이나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말하기 매우 모호한 독특함을 띠고 있다[2].

개인 정규 4집으로 알려진 모노크롬(MonoCrom)앨범은 특히 정형화된 대중음악이라고하기엔 다소 복잡한 사운드이므로,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호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앨범의 흥행 또한 기존의 앨범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수많은 대중음악(Popular Music)평론가들이 언급한 내용 또한 그가 이전에 발표했던 다른 앨범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매번 발표하는 그 만의 개성 있는 사운드는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신해철의 열성팬 조직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

신해철은 정규 3집 앨범부터 크롬(Crom)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의 정규 3집 앨범부터는 일렉트로니카 즉, 테크노 음악을 주요장르 기반을 두어 앨범을 발표하였다. 그의 테크노 음악 장르의 시도는 이미 빅스트 1집 히트 넘버인 “도시인”이라는 작품에서 예견된 행보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테크노(Techno)”라는 새로운 기재(器財)의 음악은 신해철이 발표했던 장르 중 록(Rock) 만큼이나 애정을 갖은 음악장르이다[3].

1996년 신해철은 윤상과의 프로젝트팀인 ‘노댄스(No Dance)’를 결성하면서 록(Rock) 외에도 테크노 장르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다. 1991년 국내 최초로 미디(Midi) 사운드로 발표한 솔로 2집 앨범도 연주인이 직접 연주하는 패턴의 음악보다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한 사운드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테크노 음악이 댄스음악은 아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90년대 국내 가요시장에서 댄스음악의 대량복제에 쓰여 온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테크노음악으로도 얼마든지 실험적인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실험적이고 전문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그의 통산 세 번째 테크노 장르 앨범인 모노크롬의 음악적인 구성과 성향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모노크롬앨범은 대중성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새로운 유형의 이 앨범은 수록 곡 중 여러 곡은 거의 가사가 없으며, 반복적인 진행구조, 복잡한 구성, 혼용된 국악과 테크노, 록 사운드, 3, 4부로 나누어져 러닝타임이 13분에 가까운 곡까지 기존의 평범한 앨범의 구성과는 매우 다르다. 이처럼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이 앨범은 그가 발표한 앨범 중 가장 낮은 판매고를 올렸다. [모노크롬의 판매량은 약 17만 장으로 추산됨- 출처: 신해철과 임진모의 인터뷰] 그러나 본 앨범의 색 짙은 테크노 음악과 전통음악을 접목한 결과물은 새로운 사운드를 향한 음악적인 가치와 의미에서 한국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사실 이 앨범은 국내에서만 활동하기 위해 제작된 앨범은 아니다. 앨범의 북클릿을 참고하자면 빅뱅뮤직(Big Bang Music)이 국내홍보를 맡았으며, 루이스 엔터테인먼트가(Lewis Ent) 해외 홍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노크롬의 해외 활동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1 모노크롬

모노크롬의 앨범 크레딧은 다음과 같다.

신해철(Crom)
프로듀서, 녹음, 보컬, 작사·작곡·편곡, 코러스,
에디트, 프로그래밍, 건반, 신시사이저

크리스 상그리디(Chris Tsangarides)
프로듀서(공동), 녹음, 어쿠스틱/전자 기타,
5현/프렛레스 베이스 기타

참여 음악인(Musician)
장재효 : “폼바” 보컬(무소유 part 2)
민영치 : 팽과리, 장구(1)
이용구 : 대금, 태평소(1)

남궁연 : 장구 샘플 (1)
 스텝(step)
 Careth Ashton - 보조
 Chris Tsangarides - 믹싱, 영문 작사
 D.Yvette Whon - 영문 작사
 Big Bang Music Corp. - 한국 매니지먼트
 Jim Lewis(Lewis Ent) - 해외 매니지먼트
 Dave Yang -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
 전상일 - 아트 디렉터, 디자인
 유미리, 강권순 : 소리, 타령(8)

모노크롬(Monochrome)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가지 색만 사용하여 그린 그림 또는 주로 검정이나 짙은 갈색을 뜻한다. 흑백영화나 사진 또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해철의 프로젝트 팀인 모노크롬(Monocrom)은 동음이의어로 자신의 닉네임인 크롬(crom)에서 착목(着目)하여 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4].

신해철의 예명인 '크롬(Crom)'은 청교도 혁명으로 공화정을 설립한 영국의 혁명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1599~1658)]'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신해철의 팬클럽의 이름인 '철기군(iron-side)'도 크롬웰의 정예부대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해석된다.



Fig. 1. Fan Club



Fig. 2. MonoCrom Front



Fig. 3. MonoCrom Back

위의 앨범 자켓은 사전적 명사인 모노크롬(Monochrome)에 가까운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앨범에 수록된 작품들의 단순한 진행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록된 작품들도 단조로운 진행이나 반복되는 구간들이 모노크롬(Monochrome)의 사전적 의미인 한 가지 색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샘플링 사운드를 자주 사용하는 테크노 음악과도 모노크롬(Monochrome)의 사전적 의미는 이질감이 없어 보인다. 그는 이번 앨범에서 국악을 좀 더 확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5].

앨범을 발표한 직후 한 인터뷰에서 신해철은 “내가 한 국민이어서 의무감으로 국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국악의 기본 정서는 `한(恨)`이라기보다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신명`이라고 본다” 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앨범에서는 국악과 협업했던 넥스트 정규 3집 앨범보다 국악의 비중을 좀 더 높였다. 또한 팽과리, 장구, 징 등 사물놀이 전통악기뿐만 아니라, 대금, 태평소, 품바, 타령 등 더욱 다양한 국악의 개입과 기존 국악과의 협업보다 더 넓은 확장성 있는 크로스오버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앨범과 마찬가지로 이번 앨범 또한 신해철은 프로듀서는 물론 보컬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앨범에 참여한 크리스 샹그리디는 기타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공동으로 앨범 프로듀싱을 맡았다. 그리스 출신의 크리스샹그리디는 게리머어, 주다스 프리스트, 잉베이 말름스틴 등 많은 유명 록밴드와 많은 앨범을 작업을 같이한 사운드엔지니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6].

신해철과 크리스 샹그리디는 ‘모노크롬’ 앨범 이후 함께 음악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 앨범 4번째 수록곡

인 <Machine Messiah>의 주요 멜로디와 기타리스트가 주다스 프리스트(Judas Priest)의 2001년 《Demolition》앨범 수록곡에 동명의 제목으로 무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신해철의 <Machine Messiah>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일화는 당시 록매니아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아마도 크리스 샹그리다가 공교롭게 《Demolition》앨범의 프로듀싱도 맡게 되면서 생겨난 일화이다. 이것은 오히려 신해철의 팬들에게 록 음악의 거장인 “주다스 프리스트”가 그의 음악을 표절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흥미 있는 에피소드로 남아있다[7].

2.2 수록 곡 분석

앨범에 수록된 곡은 다음과 같다.

1. 무소유(無所有): I've Got Nothing 13:13
Part 1. 강물처럼 흐르다
- Flow Like a stream
Part 2. The Poomba
Part 3. I've Got Nothing, so I'm free
2. The Grinder 5:21
3.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4:18
4. Machine Messiah 8:40
5. Textbook Suicide 6:32
6. I'm Your Man 4:37
7. Black Sun(Prototype ver 2.5) 6:02
8. Go With The Light 12:48
Part 1. 海 - The sea
Part 2. 煩惱(번뇌)의 이름
- The name of Kleśa
Part 3. 처녀 비행 - The Virgin Flight
Part 4. 煩惱(번뇌)의 이름
- The name of Kleśa[3]

앨범의 첫 번째 작품인 무소유(無所有)부터 매우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악기를 직접 연주 방식이 아닌 특정 마디 또는 특정 음을 조개어 반복적인 샘플링 형태로 작품이 시작된다. 물론 테크노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주법이지만, 특이한 점은 국악기를 샘플링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호에 가까운 샘플링 사운드를 중추적인 베이스에 두고 국악기인 대금을 시작으로 북, 장구, 태평소, 팽과리 등을 삽입하면서 음악은 긴장감과 동시에 확장성을 띠며 점점 사운드를 가득 채우고 있다[8].

국악과 테크노가 결합된 사운드 위에 한글이 아닌 신해철의 영어 내레이션 역시 국악에 외국어를 삽입하였다

는 점, 역시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함을 알 수 있다. 강물처럼 흐르다 part 1.이 마치면, part 2. The poomba가 이어지는데 장타령(푼바)을 삽입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가사의 내용을 투영하고 있다.

두 번째 트랙인 “The Grinder”라는 작품은 영어 가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Grinder”는 가는 도구 또는 칼 따위를 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이 작품 제목인 “The Grinder”를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이전 앨범의 가사로 표현했던 철학적인 의미보다 더욱더 추상적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르키거나, 연상되는 주제도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의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 다음은 “The Grinder”의 가사의 일부이다[9].

영문 가사 :

People who only see what they wanna see
They're making realistic fantasy
That's really easy but it doesn't impressed me
I'm just scratching the door
And it is grinding me on and on

번역 가사 :

원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
그들은 현실적 환상을 만들고 있다.
그것은 정말 쉽지만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난 그냥 문을 긁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나를 계속 갈고 있다.

위의 가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The Grinder”는 사회적 제도, 자본주의, 긍정적인 사고나 원하는 행위 같은 것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시작에서 끝까지 변칙 없는 정형화된 비트와 속삭이듯 읊조리는 내레이션은 웬지 구조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언가에 갇혀 있거나 억눌려 있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평기한 리듬으로 시작하는 세 번째 트랙 “니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뭐야”는 작품은 같은 가사를 단순하게 계속 반복함으로써 감상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최근 K-pop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후크송(Hook So-ng)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쉬운 음악적 구성과 대중적이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이 곡은 앨범의 타이틀 넘버로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특이한 것은 이 작품이 7번째 트랙

“Black Sun(Prototype ver. 2.5)”과 동일한 곡이라는 점이다[10].

“Black Sun”의 ‘Prototype’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Black Sun”은 “니가 진짜로 원하는 건 머야”의 초기버전이다. 이 곡의 연주되는 음악은 두 작품이 동일하지만, 곡에서 표현하는 주제와 가사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다. “니가 진짜로 원하는 건 머야”의 가사는 직설적이고 일상적인 구어체(口語體)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Black Sun”은 다소 철학적 사상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되는 문어체(文語體)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가사내용 또한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거나 표현하기보다는 “Black Sun”이라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부정적이고 거대한 존재를 등장시켜, 거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다[11].

2001년 “니가 진짜로 원하는 건 머야”는 기존의 대중가요를 인디밴드들 자신들의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Indie Power 2001”이라는 앨범에서 트래쉬메탈 밴드 “크래쉬(Crash)”가 원작보다 더욱 거친 록사운드로 리메이크를 하게 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와 다소 자극적인 노랫말은 트래쉬메탈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써, 리메이크작품 역시 록매니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

마지막 수록곡인 “Go With The Light”은 총 4부로 나누어 있는 작품이다. 첫 번째 곡인 무소유와 비슷한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중 첫 번째 파트 “海”는 일정한 신호음과 파도 소리, 그리고 장구 소리로 시작하는데, 새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대금의 연주가 매력적이다. 이후 두 번째 파트인 “번뇌(煩惱)의 이름”은 남도민요 “새타령”을 테크노 음악의 샘플링 기법과 딜레이 기법을 활용하여 음원을 데이터화 시켰다. ‘중모리장단’의 새타령과 다양한 국악기를 4분의 4박자의 드럼과 베이스, 기타사운드와 결합하였는데 국악을 한국적인 전통음악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국악도 대중음악에 하나의 훌륭한 기재(器財)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마지막 8번 트랙이 끝나면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음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트랙이 끊기지 않은 채 “Demo No.69” 라는 보너스트랙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앨범 크레딧에 작품의 주제나 설명, 가사도 전혀 없다. 작품 제목 그대로 정식음원을 녹음하기 전 미완성된 채 녹음한 69번째 음원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강렬한 기타리프가 연주된 이후 일렉기타의 아르페지오와 함께 이어지는 대금의 연주가 매우 인상적이다. 이 곡의 음원파일이 주다스 프리스트의 ‘Metal Messiah’라는 작품에 그대로를 무단 사용된 사건은 음악평론가들에게

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화이다[12].

신해철은 2011년 8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 <고스트스테이션>에서 ‘Metal Messiah’ 표절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으로 단정을 짓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

“(전략) 주다스 프리스트는 오리지널 멤버로 재결합해서 그 이후로도 전세계에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리퍼 오웬스가 재적하던 시절,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동양에서 온 신비한 아티스트의 곡을 무작정 베끼면서 멀티 테입까지 갖다 썼다든가...”

“하는 추문들은 그냥 물어두기로 한다. 전설로 전설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법...”

“왜냐하면 우리에게겐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3. 결론

모노크롬은 신해철(Crom)과 크리스 샹그리디(Chris Tsangarides)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앨범이다. 안타깝게도 두 뮤지션은 현재 유명을 달리 하였다. 신해철은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하였다. 2019년 5월 신해철 유족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사망사고와 관련된 5년간의 송사(訟事)가 마무리되었고, 앨범의 공동프로듀서인 크리스 샹그리디(1956.08.17.~2018.01.07.)는 폐렴과 심장마비 증상으로 사망하였다. 두 천재아티스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금은 실제 연주를 감상할 수 없는 아쉬움을 갖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노크롬의 음악을 감상 하다 보면, 분명 대중적이거나, 상업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음악을 집중력 있게 감상하기 편한 3~5분 정도의 러닝타임도, 한 작품에 동일한 BPM으로 편안한 진행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들의 음악은 어떠한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기법으로 변화무쌍하게 변주기법의 형태로 어찌 보면 매우 어렵고, 시끄럽게 들릴 수 있다. 복잡한 비트에 반복되는 기타리프(GuitarRiff)와 딜레이타임(Delay Time), 매우 긴 네레이션(Narration), 비명소리, 각종 샘플링 소리 등은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음악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또한 5분의 러닝타임에 신해철의 목소리는 고작 1분도 나오지 않는 곡들은 분명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노래 멜로디 위주로 구성되어진 일반가요와는 분명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산업에서 마찬가지로 대중음악도 큰 변화 없이 한 가지 패턴으로만 이뤄지고, 별 차이점이 없이 그저 비슷한 음악만을 생산한다면,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13].

대중음악은 현 시대를 반영하는 대중예술이다. 현재시대의 이슈를 가사에 투영하여 우리 삶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일상에서의 편안함과 주제거리로 이야기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모노크롬의 음악은 평범한 일상이라기보다는 매우 특별한 일상의 한 장면으로 보여 진다. 다소 복잡하고, 어지러운 측면도 있지만, 항상 같은 일상이 반복하지는 않듯이 정해진 음악 장르에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모노크롬 크로스오버 장르앨범은 한국 대중음악의 질적 향상과 대중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다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에 매우 좋은 실험이라고 판단되어진다.

현재 'K-Pop'은 오히려 국가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다. 각종 외신들은 K-Pop 스타들이 현재 아시아를 넘어 북미시장과, 유럽, 남미 모두 'K-Pop'에 열광시키고 있다고 연일 보도를 쏟아낸다. 그 중 BTS와 블랙핑크는 계속해서 굉장한 팬덤을 확보하고, 한국대중음악역사와 자신들만의 기록들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K-Pop' 스타들은 대부분의 작품에 한글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한글을 외국인들이 직접 번역하고 뜻을 이해하며, 열광하고 있는 민기 어려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음악 중에는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국악을 접목하기도 하였다. 이런 요소들을 시도하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김수철, 신해철, 서태지와 아이들 등 이전 뮤지션들이 국악과의 다양한 시도를 하였던 것에서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BTS'는 2018년 발표한 리패키지 앨범 수록곡 중 '아이돌(Idol)'이라는 작품에서 사우스 아프리카 리듬에 '일췌 좋다', '지화자 좋다', '덩기덕 쿵더러러' 같은 국악의 장단음과 한국적인 추임새를 삽입하여 곡을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대중음악은 보다 넓은 확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음악을 갈망한다. 매년 비슷한 포맷의 구성과 멜로디로는 더 이상 대중들의 눈과 귀를 자극할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K-Pop'은 지구촌에서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K-Pop'은 음악은 물론, 춤, 메이크업, 의상 등 모든

소재가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가 모두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K-Pop'이 단기간 한 순간의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지지 않고, 세계적인 음악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확장성을 기반을 둔 새로운 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모노크롬 앨범에서처럼 국악을 음악적 기재(器財)로 사용한다면, 차별성을 둔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높은 'K-Pop'의 관심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모노크롬 앨범은 향후 'K-Pop'이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References

- [1] Yu-lia Kwon et al. Shin Hae-chul and Next City. Munhwa-Dabooks. Oct. 2015.
- [2] Seung-Ho Ji, Hae-chul Shin. ShinHae-chul's An eloquent speech. March. 2008.
- [3] Hae-chul Shin. the Devil Shin Hae-chul. Dec. 2014.
- [4] <http://kpopmuseum.com/>
- [5] [https://ko.wikipedia.org/wiki/Shin Hae-chul](https://ko.wikipedia.org/wiki/Shin_Hae-chul). May 2017.
- [6] The Dong-A Daily News. Page 14. September. 1992.
- [7] Beom-Jin Jo , T.S. Cho. A Study on Arrangement through Avoid Note and Tensi on Note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3. No11 pp.349-355, 2015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349>
- [8] Hae-Kwon Lim, Tae-Seon Cho A Study of Individuality of Seung_Hwan Lee's Music Represents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3. No11 pp.406-415, 2015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409>
- [9] Joon-Soo Kim, Tae-seon Cho. N.EX.T 3th Album analysis. KAIS. May. 2017.
- [10] Joon-Soo Kim. Shin Hae-chul's Music analysis - N.EX.T Album analysis.- a master's thesis. Feb. 2018.
- [11] Joon-Soo Kim. A Study on "MonoCrom" Album a master's thesis. May. 2019.
- [12]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74744#csidx057040da673744c9114989572c268b7>
- [13] <http://www.blabbermouth.net/news/legendary-rock-producer-chris-tsangarides-dead-at-61/>

김 준 수(Joon-Soo, Kim)

[정회원]



- 2018년 2월 : 청운대학원 졸업
- 2019년 8월 : 한국실용음악교육협
의회 사무국장
- 2020년 2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 現 알바트로스 뮤직 이사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
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한국실용음악교육협
의회 회장
- 2019년 9월 : 한국대중예술융합협
회 회장
- 2020년 2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